

부담스런 금리,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전강후약

KOSPI 6,869pt(-1.6%), KOSDAQ 834pt (-3.5%)

① 해외 상황 연휴기간 약세였던 지수와 차별화된 강세 스토리지

- 연휴 기간 미국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금요일, 7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6% 감소 -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51(예상치 하회) 등 지표 발표 이후 경기 둔화 우려 부각. 간밤도 추가 하락. 중동 불안 지속되며 국제유가 상승. 특히 30년물 국채금리 5.3% 상회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 경제지표 둔화에도 재정 부담과 AI 투자 확대에 따른 회사채 발행 증가가 장기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스토리지 전반 강세. 1) 엔트로픽의 2분기 매출이 115억 달러 넘어 전년 대비 14배 증가. 연환산 매출도 650억 달러 돌파. AI 투자가 실제 매출, 즉 숫자로 연결되고 있다는 기대가 다시 강화 2) 7월 메모리 전반 큰 악재로 작용했던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 시도. 미국 정부가 이에 제동 걸며 메모리 업종 강세. 마이크론 4.1%, 샌디스크 8.9% 상승

② 수급 장초 대량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 견인하던 외국인 매물 출회에 지수 하락 전환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0.7조, 외국인 +914억, 기관 -0.78조원 순매수. 외국인 KOSPI - 개인 KOSDAQ 순매수 이어지며 지난주 월화수목금에 이어 6거래일 연속 양대 지수 동반 상승 기대했으나 매수세 대폭 반납에 지수 하락 마감

③ 특징업종 실적과 정책이 야기한 테마 상승

- 1) **보험(손해보험)**: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으로 보험사 운용 수익률 및 자본여력 개선 기대 부각 2) **남북경협**: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와 김정은과의 관계 강화로 북미 대화 재개 및 한반도 긴장 완화 기대 부각

④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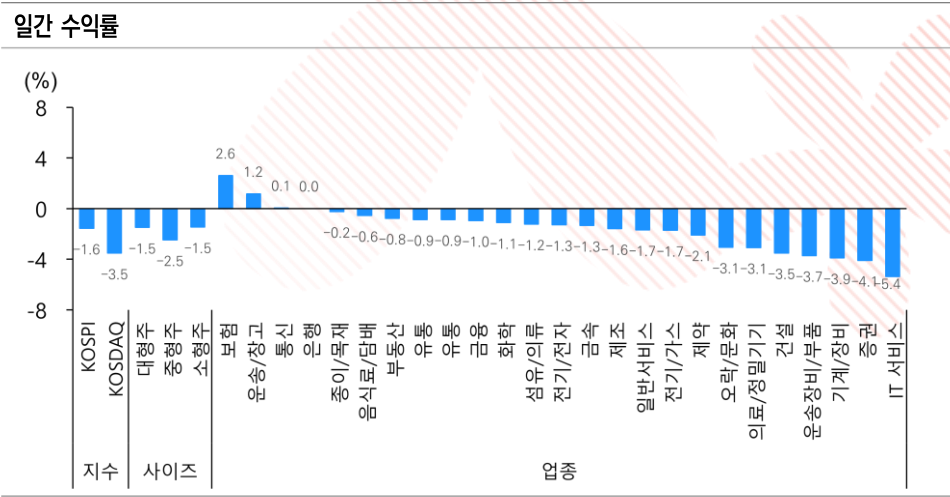
- 1) 美 FOMC 의사록 (8/19)

⑤ 상황 5거래일 연속 양대지수 상승했으나 금일 중단

- 금일 KOSPI, KOSDAQ 각각 1.6%, 3.5% 하락. KOSPI, KOSDAQ 동반 5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나 금일 랠리 종료. 국내 증시는 반도체 주도 외국인 자금 유입에 7,200pt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빠르게 상승분 반납. KOSDAQ은 KOSPI 대비 언더퍼폼 지난주에 이어 지속되며 낙폭 확대. 장 초반 연휴기간 미국 스토리지 강세 반영. 1) 엔트로픽의 매출 숫자로 증명 2) 애플-중국산 쓰지마 이슈 반영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 고가 기준 +4.9%, +8.9% 상승폭 확대 했으나 종가 기준 수익률은 -2.2%, +1.1%에 불과하며 장중 상승폭 대폭 반납
- 중동과 금리가 반도체 호재를 압도. 1) 미국과 이란의 60일 협상 시한이 합의 없이 종료되며 국제유가/시장금리 재차 상승 및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일본도 BOJ 조기 금리 인상 우려 속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30년 만의 최고치 기록. Bofa, 다음 BOJ 인상 시점을 10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최종 정책금리 전망도 1.75%에서 2%로 상향 조정
- 전략) 결국 AI, 메모리 펀더멘털이 훼손됐다가 보다 글로벌 할인율 상승이 최근 빠르게 반등한 주도주(스토리지), 고베타 종목의 차익 실현을 촉발한 하루. 전일 휴장이 아니었다면 상승의 과실을 취할 수 있었을 것. 아시아 주식시장은 금일 동반 하락. 니케이 225 -2.5%, 토픽스 -1.1%, 대만 가권 -1.2%. 특히 외국인 자금이 장중(KRX+NXT) 오전 10시 경 1.5조원까지 빠르게 KOSPI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순매수 했음에도 장마감 직전 대부분 반납하며 지수 변동성 야기. 외국인의 추세적 순매수세 유지가 중요하지만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 하나로는 유지될 수 없음을 오늘도 확인. 시장금리와 주주환원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의 반복 Again. KOSDAQ에서 KOSPI 대형주-반도체 소부장으로서의 자금 이동도 지속될 필요 재강조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7,951	-4,164
외국인	914	366
개인	7,414	3,892
거래대금	296,448	80,533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